

[에버렛 스완슨이 기도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요도: 매우 중요함

기도편지 #3

일리노이주 시카고

사랑하는 기도 파트너 여러분께,

사랑하는 구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축복과 기쁨, 화려하고 반짝이는 물질주의와 영적 중요성이 대비되었던 1954 년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또한 기쁨과 슬픔, 결의, 소망, 승리와 패배 등으로 채워질 미지의 새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리스도뿐 아니라 영원, 창조, 예언, 갯세마네, 갈보리, 빈 무덤, 다가오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새해에는 그분을 더 잘 알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그분의 능력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기도 편지를 보내 드린 이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릴 일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 편지는 저의 오랜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새로운 친구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확실히 응답하셨습니다. 먼저 저의 정기 전도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미네소타주 맨카토(Mankato), 네브래스카주 오클랜드(Oakland), 사우스다코타주의 수폴스(Sioux Falls), 매사추세츠주의 브록턴(Brockton),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 등지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그 백성들과의 교제를 축복하며 열심히 사역에 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고백하고, 배교자들이 돌아왔으며, 많은 가정 제단이 세워지고, 흡연자들이 돌아오는 등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술주정뱅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무지와 두려움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여섯 명의 가족, 즉 아버지와 어머니, 17 세 딸, 15 세 쌍둥이, 12 세 딸이 한 번의 예배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응답된 기도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선교적 관심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헌금은 여러 곳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훈련된 한국인 전도사 15 명을 한 사람당 월 20 달러로 지원할 수 있다는 편지를 9 월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기도 응답으로 15 명이 아닌 24 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연내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몇 가지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자신의 "선교 대리자"를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세우고 싶은 분들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9 월부터 대구에서 집 없는 전쟁고아들을 위해 새로운 보육원인 뉴 라이프 보이즈 보육원(New Life Boy's Home)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임시 대피소를 위해 군용 천막을 구입했으며, 현재 약 80 명의 불쌍한 소년들이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금만 있다면 수백 명의 소년들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월 4 달러면 여전히 한 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명을 "입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삼척의 러브 앤 호프 보육원(Love and Hope Orphanage)에서는 73 명의 소년 소녀를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수에 부지를 갖 구입했으며, 현재 약 22 명의 고아가 그곳에 있습니다. 오, 한국 전역에 복음 전파의 필요성과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서점을 많이 세워주신(우리의 목표는 100 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기뻐하십시오. 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기독교부흥협회(Christian Revival Fellowship in Korea)의 이사 로버트 라이스(Robert Rice) 선교사로부터 "18,000 명이 넘는 불신자들이 이번 성경읽기 프로그램에 등록했다."라는 보고를 이번 주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서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긴급한 기도제목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주십시오. 지난 여러 달 동안 저는 선교사들과 전국 목회자들로부터 3 차 전도여행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달라는 긴급한 간청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기도했지만, 그들에게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저에게 크게 도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명에게 설교할 기회, 말씀을 듣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특별한 사람들,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가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그렇게 간절히 오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첫째, 저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 결코요! 저의 육체는 그곳에서 걸렸던 말라리아와 아메바성 이질의 공격, 그리고 오물 등 모든 역경에 저항했습니다. 둘째, 저는 제 앞에 놓인 일, 즉 밤낮으로 저에게 기대되는 일에 저 자신이 너무 부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매일 4 시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밤 10 시까지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매일 4 시간의 설교(최소 그 시간 정도)를 기대합니다. 셋째, 이런 전도여행에 하나님께서 자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저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몇 주에 걸쳐 영혼을 다한 기도를 드린 후 12 월 8 일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저에게 놀랍고 달콤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그 일을 위한 은혜와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우리가 더디 믿고, 순종이 느릴지라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친절을 베푸십니다. 저는 즉시 한국에 3 월 15 일까지 가서 비로 인해 야외 집회를 멈춰야 할 때까지 머물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6 월 10 일경). 또한 그날 밤 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집회를 계획했던 교회들에 이를 알릴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면서 모든 미련을 떨쳐 냈습니다. 모든 비용을 지불할 돈이나, 심지어 제 가족을 돌볼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5 달러와 제 사역 비용에 대한 몇 가지 약속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임을 압니다.

저에게 얼마나 엄청난 기회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도시에서 사역하기 위해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부흥집회와 전도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번의 예배에서 1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으며, 마지막 집회에서 약 30,000명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제로 몇몇 집회에서 최대 50,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¹밥 피어스 (Bob Pierce) 박사가 10월에 서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4개의 신문에서는 50,000명의 참석자를 추산했습니다. 저의 친구인 일본복음주의연맹선교회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in Japan)의 프레드 자비스(Fred Jarvis) 박사가 11월에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통역사와 전국 전도사들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월 11일, 그는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버렛,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믿기 힘들 겁니다! 매일 밤 12,000명에서 15,000명 사이의 사람들이 모였고, 마지막에는 20,000명에서 25,000명 사이에서 마무리되었답니다!! 한 집회에서는 1,800명이 신앙고백을 했고, 사람들은 모든 집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한 번의 철야기도 모임에 6,000명이나 모이기도 했고요. 또 한 도시에서는 약 6,000명의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사람들과 함께 증거하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도 저의 친구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자비스 박사에게 저의 사역의 일부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제 앞에 얼마나 큰 기회와 책임이 놓여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이 이 한국전도성회(Korean Evangelistic Crusade)를 위해 기도하기로 서약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전장에 나가는 동안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모험입니다. 저는 저를 지지하는 조직이 없고, 한국인들은 비용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흥과 영혼을 사랑하는 전국의 친구들에게 희생적인 지지를 호소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박사가 런던에 가기로 계

¹밥 피어스(Bob Pierce, 로버트 피어스 Robert Pierce, 1914~1978): 미국 침례교 목사이자 구호 활동가로 1950년 월드비전을 창립했음.

획했을 때, 그는 그곳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전역의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집회의 비용은 약 25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한 미국인이 10만 달러를 헌금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네, 그보다 몇 배나 더요.

그곳에서의 3~4개월 동안 필요한 교통비, 광고비, 집세, 한국 여행 경비, 성경 구입 및 후속 조치 비용,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를 포함한 비용을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총 5,280달러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한국의 집회에서 지출한 1달러마다 6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서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원받지 못한, 가난한 마음의 수천 명의 한국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들의 영혼에 투자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친구는 최소 500달러와 100달러를 더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시고, 동봉된 봉투를 사용하여 크든 작든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시겠습니까? 원하시면 몇 개월에 나눠 낼 수도 있지만, 제가 전체 액수를 알아야 그에 따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소득의 십일조만 주님의 일에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희생을 치르고 - 자기를 부인하고 -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들이 더 많은 나라를 휩쓸고 복음의 문을 굳게 닫아 버릴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이 한 일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지옥에서 구원해 내실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송축합니다.

그분의 복된 이름으로, 모든 곳의 영혼들을 위해,

전도자 에버렛 F. 스완슨 올림

향후 몇 주간 아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1/2~16, 미네소타주 레드윙(Red Wing)
- 1/18~30, 일리노이주 락포드(Rockford)
- 2/1~6, 아이오와주 스트렛포드(Stratford)
- 2/15~27, 워싱턴주 퓨앨럽(Puyallup)